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12

2002

충현의 만나

가정예배 · 창세기 · 마가복음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12

2002

충현의 만나

가정예배 · 창세기 · 누가복음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충현의 만나」는
성도들의
가정예배와 구역예배를
돕기 위해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교재입니다

기 도 제 목

1.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하고 그 복음을 따라 행하며 전하게 하소서.
2. 우리 교회가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3. 모든 교회 일꾼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 성령 충만한 가운데 교회를 섬기게 하소서.
4. 구역예배가 살아 움직이고 이를 통해 교구가 성장하여 교회가 진정한 영적 부흥을 이루게 하소서.
5. 새벽기도회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더욱 힘있게 하시고, 5부예배를 통하여 젊은 일꾼들이 복음 안에서 바르게 양육되게 하소서.
6.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아보는 일에 저희를 써 주소서.

12월의 ‘거리에서’



12월의 성탄의 거리에는 기쁨이 있을까요?

다정한 연인(戀人)들의 미소가 흘러 넘치고, 두 손에 들린 선물꾸러미는 넉넉해 보이지만, 그들의 마음에 찾아드는 어두움의 추위는 막지 못하고 있는 듯 합니다. 영혼을 어거(馭車)하시는 이가 계시지 않는 곳, 그곳은 늘 질투와 반목이 싹트는 황무지인 것을 사람들은 모르는 모양입니다.

성탄의 거리에는 진정한 평화가 있을까요?

감미로운 음악이 귓가에 머물고, 반짝이는 장식들은 시선을 멈추게 하지만, 그들은 어느 곳에서도 편안히 안식할 수 있는 곳을 발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평화의 왕이 계시지 않는 곳, 그곳은 언제나 치열한 전쟁터인 것을 그들은 모르는 모양입니다.

12월의 성탄에는 초라한 구유가 필요합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이(사 43:19)!

광야에 물들을 내고 사막에 강들을 내시며, 택한 자로 그 물을 마시게 하실 하늘의 왕이 필요합니다(사 43:20).

우리 모두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천사들의 노래가 필요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눅 2:14).

2002년 12월을 맞이하며

위임목사 김 성 관

마가복음 서론

본 서의 저자가 마가라는 것이 성경 본문에 직접적으로 명시가 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본문을 살펴볼 때 저자는 팔레스틴 지방의 지리에 익숙했으며 아람어를 사용한 유대인이었음이 틀림없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교부들은 이런 점을 중시하여 한결 같이 마가를 본 서의 저자로 증거하고 있다. 사실 마가는 생전에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다. 그러나 마가는 본문에 기록된 자료의 대부분을 베드로를 통해 들었다. 그러므로 본 서는 사도 베드로의 강력한 권위를 배경으로 기록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본 서의 기록연대에 대해서는 정확한 성경상의 자료가 없으나 대다수의 학자들은 예루살렘 멸망 예언(A.D.70)의 예언이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A.D. 67-70년 사이로 보고 있다.

마가복음은 A.D. 64년에 일어난 로마의 대화재를 그리스도인이 저질렀다는 누명을 쓰고 체포되고 고문을 받는 위급한 상황 속에서, 끝까지 순교할 것인가, 아니면 주님을 부인하고 살 것인가를 갈등하는 당시의 교인들을 지켜주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되었다. 그래서 마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힘을 주고 예수님께 대한 믿음의 토대를 견고케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난을 모범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로마의 법정에 서야 할 것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말씀보다 그의 행동을 강조한다. 이것은 아마 이론적인 정확성 보다는 박해에 직면한 성도들에게 강한 확신을 부여해 주기 위해서 일 것이다. 그리고 본 서에는 '바로' 나 '곧' 이라는 단어를 무려 41회나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본 서가 행동의 복음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간결하고 박진감 있는 직설적인 문체를 사용하고 있으며, 목격자인 베드로에 의한 사실적(寫實的)인 묘사가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기적을 강조하고 있으며, 구약의 인용이 63회 정도로 적고 유대인의 습관, 지명, 족보 등을 대부분 생략함으로 이방인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기록하고 있다. 본 서에 나타난 주님은 죄인들의 육체적, 영적 필요를 채우기 위해 노심초사하는 겸손한 종으로 묘사되었다. 다시 말해 이 복음서는 종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 등에 관한 언급은 생략한 채 곧바로 공생애를 소개하고 있다. 그래서 본 서는 시작에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종으로서의 인격과 사역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특히 10:45에 그 주된 내용이 집약되어 있다. '예수님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 주려는 데 있다'(빌2:5-11)는 것이 그것이다. 또한 본 서에서 그리스도는 감정이 풍부하시며 심지어는 인간적인 약점을 가졌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인성을 지니고 있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다(4:38; 6:31; 15:34). 또한 마가가 의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동족(同族)의 거부에 의해, 낮아지심의 극치인 십자가에 달려 일시적인 패배를 경험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를 회복한다는 점을 이방 독자들에게 보여 주려하고 있다. 그러므로 마가는 구약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수신자로 삼아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계에 증거하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본 서를 기록한 것이다.

내용분해

1. 종의 소개(1:1-13)
2. 종의 전도생활(1:14-5:43)
3. 종에 대한 반대(6:1-8:26)
4. 종의 교훈(8:27-10:52)
5. 종의 입성과 배척당하심(11:1-12:44)
6. 종의 예언(13:1-37)
7. 종의 수난(14:1-15:47)
8. 종의 부활(16:1-20)

32장에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형 에서가 마중을 나옵니다. 쌍둥이 형의 장자권을 가로채 아버지로부터 축복기도를 받고 형의 보복이 두려워 외삼촌 집으로 피하였다가 많은 재물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얻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런데 형 에서를 만날 일이 걱정입니다.

야곱은 에서를 만나기 전날 근심 중에 있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가병(家兵)을 이끌고 와서 예상과는 달리 야곱을 끌어안고 읍니다. 하나님께서 환경을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한평생 자신의 의지와 고집대로 살았던 야곱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못난 자아가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방법의 한계성과 무익함을 알았습니다. 이제 야곱은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을 깨닫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하며 주님 곁을 떠난 생활을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고백하지만, 매 순간 자신의 욕심대로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직장, 자녀의 진학, 진로, 결혼문제 등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최선을 다한, 그 다음 안되면 주님께 맡기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모든 일을 주님이 인도하시도록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을 주님이 인도하시도록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 / ① 매 순간마다 주님을 인정하며 살게 하옵소서. ②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소금과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창 33:20에서 야곱은 단을 쌓고, '엘엘로헤이스라엘' 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와의 만남에서 생각 외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에서가 가병(家兵)을 이끌고 와서 두려워 떨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에서의 손에서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체험한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인생이 풀려 행복만 있을 줄 알았는데, 딸 디나가 추장 세겔에게 겁탈을 당하자, 시므온과 레위가 복수의 칼을 들어 세겔성 모든 남자들을 죽입니다. 이로 인해 야곱은 다시 주변의 민족들의 보복에 대해 불안한 맘을 가눌 길이 없었습니다. 야곱은 괴로웠습니다. 압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 그의 인격이 많이 새로워졌지만 아직도 그는 더 연단 받아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가나안 땅에 평안히 정착하고도 벨엘에서 서원했던 것을 잊고 자신의 의지대로, 욕심대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28:20-22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갑자기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이나 환난으로 인해서 당황해하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신가?" 하고 답답해합니다. 그러다가 선불리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결코 우연이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후 7:10).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결코 후회가 없습니다.

기도 제목 / ① 고난 중에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
② '위임독사님' 이 복음만을 전하는 성령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창 34장에서, 야곱이 딸 디나 사건의 시련 후, 근심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일어나 베엘로 올라가 거기 거하며 네가 네 형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1절). 야곱은 까마득히 잊고 있었던 지난날의 서원을 기억해 냈습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단을 쌓고 십일조를 드리겠다고 서원했었습니다(창 28:20-22).

야곱은 또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제 자신의 고집과 아집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로 결심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기억해 내고 가족들과 자기와 함께 한 모든 사람에게 이방 신상을 버리고 정결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모두 순종합니다. 이방 신상들을 의지했던 사람들은 내심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자신들이 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무사히 베엘에 도착해 단을 쌓았습니다(35:5-6).

십자가의 은혜를 한 번 체험한 것으로 하나님을 다 알았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잊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을 너무 값싼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야곱은 환난을 통해 다시 한번 낮추셨습니다. 그러자 그는 일어나 베엘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말입니다. 십자가의 그늘 아래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뜨겁게 만나십시오.

십자가의 그늘 아래로 나아가, 다시 한 번 주님을 뜨겁게 만나십시오.

기도 제목 / ① 교만한 야곱을 낮추셨던 것처럼, 나를 낮춰 주옵소서. ②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담당자들'에게 기쁨과 감사와 준비된 헌신이 있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성경을 보면 때때로 불필요하게 느껴지는 가문의 족보를 대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 족보를 이 곳에 기록해 놓았을까?”라고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 성경이 기록될 당시만 해도 오늘날처럼 인쇄술이 발달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양피지나 갈대를 얇게 켜서 그곳에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귀한 기록지에 이처럼 많은 양을 기록한다는 건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에서 가문은 언약의 가문이 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계보가 길게 언급된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 받은 이후 아브라함과 롯, 이삭과 이스마엘 그리고 야곱과 에서 등 3차에 걸쳐 있었던 민족 분리의 과정 중 마지막 단계를 일단 정리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예언대로 에돔 족속도 큰 민족을 이루었음을 밝힘으로써 언약 가문을 벗어난 자들에게까지도 베푸시는 하나님 언약의 신실하심을 보여 주기 위함입니다(창 25:23).

이처럼 인간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라 할지라도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고, 언약의 범위 밖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크게 부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긴 구속사적 안목으로 볼 때 에돔 족속의 흥왕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언약의 말씀을 굳게 믿고 주님의 제자로서 당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기도 제목 / 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조급해하지 말고 주님만 따르게 하소서. ② 충현 교회가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2절에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라고 기록되었는데도 요셉 이야기가 바로 이어집니다. ‘약전’이란 “계보, 족보”라는 뜻입니다. 야곱의 계보라고 하면서 요셉의 이야기로 시작되는 것은 야곱의 계보가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된다는 의미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4명의 아내들 중에서 그가 매우 사랑했던 라헬의 첫 번째 소생이었습니다. 더구나 라헬은 난산으로 베냐민을 낳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마음이 더욱 요셉에게로 향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로 인해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요셉을 통하여 이루실 일을 미리 요셉의 꿈을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꿈 이야기를 놓고 야곱과 요셉의 형제들의 견해가 달랐습니다. 형들은 이 꿈을 가지고 단순히 질투하고 시기하였지만, 야곱은 그 꿈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11절).

불신자와 우리가 똑같은 인생 길을 걷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성도는 불신자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눈입니다. 잠시 후면 모든 것이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현재 물질과 권세의 소유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단순히 현재의 고난과 시련에 대해서 절망하고 낙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섭리를 마음에 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섭리를 마음에 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세상의 외적 조건에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② 교역자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귀한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형제 중 하나가 죽으면 그 아내를 동생이 취하여 가문을 잇는 것을 제대 결혼법이라고 합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형제 가문을 일으켜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형제 사랑의 마음이 없이는 시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난은 형제 의무를 행치 않으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자 유다는 셋째 셀라도 죽을까 염려하여 이 법을 시행하기를 주저했고 이 일은 마침내 다말이 부도덕한 일을 하게 하는 빌미를 제공하였습니다. 가나안 사람인 다말이 가문을 이어가기 위해서 불륜의 일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에서 우리는 집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모범을 보여야 할 자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그 집안에 미치는 악영향이 얼마나 큰지 여실히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의 부도덕하고 수치스런 근친상간의 기록은 야곱의 가문이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이주해야 할 필연성을 제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야곱의 아들들이 계속 가나안 족속과 관계를 맺으며 그들과 같이 타락하게 된다면 장차 그들도 가나안 족속과 함께 멸망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한편 불륜 사건의 당사자인 다말은 기생 라합과 모압 여인 룻,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와 함께 예수의 족보에 그 이름이 기록된 다섯 여인 중 한 여인으로 기록됩니다(마 1장).

이러한 사실은 인간의 부패함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당신의 구속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행위에 근거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엡 2:8-9).

당신의 가정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 부탁하십시오.

기도 제목 / ① 경건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② 당회원들이 성령 충만하여 교회를 온전히 섬기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사람의 인생길에는 반드시 순탄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역경과 고난의 순간이 더 많습니다. 신앙인은 이런 때일수록 낙심하지 말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요셉은 하루 아침에 아버지의 보호와 은총의 품을 떠나 애굽의 노예로 팔려온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요셉은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을 받고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역경 속에서도 형통한 자가 된 것입니다. 보디발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그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형통케 하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에게 또 다른 시험이 닥쳐왔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과 모함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단호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요셉의 신앙의 단면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는 법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었으며 자신이 섬기는 주인에 대한 신의를 지키는 선한 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더욱 신앙의 인물로 연단하기 위해 이러한 유혹을 허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요셉을 애굽 왕에게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요셉은 모함을 받으며 감옥에 가면서까지 자신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이런 신앙은 십자가 상에서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면서까지 세상과 사단의 유혹의 싸움에서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을 예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세상적인 안목에서 볼 때는 패배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승리자였습니다.

당신은 진정 믿음의 승리자이십니까?

기도 제목 / ① 시험에 들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② 모든 예배와 집회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요셉의 고난은 장기간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롭게 살았지만 현실은 점점 고난과 고통의 환경에 빠져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루하루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후에 옥중에 왕실의 두 신하가 들어오는데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같은날밤에 꿈을 꾸었는데 두 사람의 운명을 예언하는 꿈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지혜로 그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하여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꿈과 환상으로 자신의 뜻을 계시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 신앙의 표준입니다. 두 사람의 운명이 극명하게 달라졌습니다. 본래 두 사람 모두 죄인으로 옥에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살고 한 사람은 죽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모두 하나님 앞에 사형선고를 받은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죄사함과 받고 구원을 얻었습니다(엡 2:1).

술 맡은 관원장은 마침내 복직 되어 바로의 왕실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의 도움을 구합니다. 사람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우리의 참된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도움이 되십니다(시편 121:1-2절).

하나님은 우리의 참된 도움이시오, 구원자이십니다.

기도 제목 / ① 환경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② 교회 직원들이 선한 청지기로서 맡은 바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애굽의 바로왕은 이상하고 음침한 꿈을 꾼다. 그 꿈은 하나님이 애굽의 미래에 대하여 보여준 꿈이었습니다. 바로는 그 꿈의 의미를 알지 못하여 괴로워합니다. 마침내 요셉은 그 꿈의 해석자로 바로왕 앞으로 인도되어 왔습니다. 요셉은 확신 있고 분명하게 그 꿈을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대안까지 제시를 했습니다(33-46절). 바로왕은 자신의 꿈과 그 해석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으로 인정하였습니다(38-39절). 우상을 믿는 애굽의 바로왕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지경 밖에서도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머리를 들게 하셨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바로왕은 전권을 요셉에게 맡겼습니다(42절). 요셉은 총리가 되어 애굽 온 땅을 순찰하며 곡물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흉년을 대비하여 곡물을 저장하였습니다.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요셉은 그 동안에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들의 이름을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므낫세는 “잊음”이라는 뜻이며 에브라임은 “두배의 결실”이라는 뜻입니다.

요셉은 그의 형들 때문에 겪었던 자신의 모든 고통과 슬픔을 이제는 잊어버릴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감사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가 되십니다.

기도 제목 / ① 베풀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소서. ② 교회 일꾼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각자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요셉이 말한 대로 애굽에 7년 풍년이 지나고 7년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가나안 땅의 야곱의 가족들도 흉년으로 매우 큰 곤란을 겪었고 마침내 식량을 구하러 10명의 형제들이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형들은 자신들이 버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줄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형들이 애굽에 곡식을 구하려고 내려와 요셉을 만나게 되는 상황은 아주 드라마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출하신 것입니다. 총리가 된 요셉은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형들을 여러 말로 시험하였습니다. 형들은 자신들 앞에 있는 애굽의 총리가 왜 자신들을 곤란케 하며 어렵게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이전에 요셉에게 한 일이 생각났습니다. 형들은 자신들이 한 일이 죄악 된 일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21절).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때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주십니다(요일 1:9).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모든 일을 섭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번성케 하실 계획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섭리가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롬 8:28).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여 죽였지만 요셉은 그들을 용서하며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에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미워하고 싫어했지만 주님은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사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너무도 놀랍습니다.

기도 제목 / ①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게 하소서. ② 교회의 모든 위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역을 전개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오늘의 본문에는 야곱은 당장 급박한 식량 사정과, 그리고 유다를 대표로 하는 아들들의 끈질긴 설득에 굴복해서, 마침내 사랑하는 말재 베냐민을 애굽에 보내기로 결단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때 야곱은 모든 아들들의 무사 귀환을 위해 가나안의 진귀한 6종류의 토산물과 아울러 갑절의 돈을 가지고 가도록 했습니다(11-12절).

한편, 여기서 베냐민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소생으로 요셉을 잃고 난 후, 그의 말년에 위로와 기쁨을 삼았던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마침내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14절)라고 고백한 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기로 작정한 것은 그의 모든 세상적 기쁨과 마지막 남은 가장 귀한 자신의 소유까지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작정했음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대기근을 풀지 않으심으로 야곱이 인간적인 모든 기쁨과 욕망을 포기하도록 강력하게 섭리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야곱의 베냐민 포기는 하나님의 뜻으로서, 그 결과 오히려 그와 베냐민, 그리고 다른 아들들까지 살게 하였으며 궁극적으로는 선한 이스라엘 12공동체를 형성케 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결국 이는 “죽으면 살리라”고 하는 기독교의 역설적 진리를 입증해 주는 좋은 예가 되었습니다. 진실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빈 손 들고 설 때 비로소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는 법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가장 귀한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참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자신을 부인하고, 생명까지 드릴 수 있는 온전한 헌신을 요구합니다.

기도 제목 / ① 자신을 부인하고 온전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② 찬양대원들이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영적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문 1-3절은 요셉이 형제들에 대한 시험 준비를 마치고 그들의 귀향을 허용하는 장면을, 4-13절은 요셉의 시험 계획에 의해 형제들이 참담한 심정으로 요셉의 집으로 되돌아오는 장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요셉의 형제들은 시므온을 애굽에 불모로 남겨두어야 했던 제1차 애굽 방문과 귀환 때와는 달리, 제2차 애굽 방문과 귀환 때에는 애굽 총리의 후한 대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제1차 애굽 방문 시 억류되었던 시므온과 특별히 베냐민을 무사히 데리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으므로, 그 발걸음은 가벼웠고 그 마음은 매우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의 은잔 시험으로 인해 또 다시 비탄에 잠기고 만 것입니다.

본문은 인간이 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즉 그것은 인간 스스로는 자신의 앞길을 한 치도 알 수 없으며, 또한 인간은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관계없이 불운을 겪거나 고통을 당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항상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가운데 모든 사건의 원인을 하나님의 섭리에서 찾지 않으면 안됩니다. 즉 하나님은 성도를 연단하고, 더 큰 축복을 베푸시기 위하여 종종 시련과 고통을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시련과 고난의 때에 결코 절망하거나 낙심해서는 안되며, 그럴수록 하나님의 선한 섭리의 손길을 믿는 신앙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더 큰 축복을 베푸시기 위하여 종종 시련과 고통을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 / ①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련과 고통들을 하나님의 섭리하심에서 찾을 수 있는 영적 안목을 주시옵소서. ② 교회학교 교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천국일꾼 양성에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오늘의 본문에서는 마침내 요셉과 형제들과의 눈물의 화해가 이루어 집니다. 본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8절은 유다의 자기 희생적인 진술한 탄원으로 말미암아 형제들의 변화를 알게 된 요셉이 마침내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두려움에 빠져 있는 형제들을 진심으로 위로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고, 9-15절은 요셉이 부친과 온 가족을 애굽으로 초청하고 요셉과 형제들이 눈물로 화해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시기와 질투로 얼룩지고 미움으로 분열되었던 야곱 가족의 갈등은 깨끗이 해소되었고, 마침내 이스라엘 12공동체가 용서와 화해와 눈물 속에서 온전하게 형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긴 세월 동안 야곱 집안에 임하였던 슬한 역경과 시련은 결국 야곱을 성화시키고, 또한 그의 12아들들을 구속사의 주역으로 세우고자 하신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성화시키고, 또한 당신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기 위하여 성도들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연단하십니다. 그런즉 성도들은 역경과 시련을 당할 때 오히려 이를 성숙의 기회로 알고 오직 믿음과 소망과 인내로 극복함으로써 마침내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벧 4:13).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성화시키고 또한 당신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기 위하여 성도들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연단하십니다.

기도 제목 / ① 우리의 삶 속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고 느낄 수 있게 하옵소서. ② '단기 선교'를 위해 모든 교구원들이 믿음으로 준비하며 협력할 수 있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야곱은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의 생존 소식을 듣고 애굽 이주에 대한 결단을 쉽게 내렸습니다(1절). 이러한 야곱 가족의 애굽 이주 사건은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닙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네 가지 구체적인 약속을 주시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는 이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의 반복으로 훗날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둘째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는 인도와 보호의 약속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기에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의 박해 속에서도 번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셋째는,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는 출애굽의 약속으로 그의 가나안 땅에 대한 언약이 변치 않을 것임을 의미합니다. 넷째는, “요셉이 그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는 야곱이 편안하게 죽음을 맞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야곱은 바로 이러한 네 가지의 분명한 약속이 있었기에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애굽으로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본문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 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거쳐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최후 대 심판과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 줍니다.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고 성취될 때까지 인내하며 끝까지 약속을 붙들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② 남녀전도회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오늘 본문은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바로를 면담하고 바로의 공식 승인을 얻어 합법적으로 고센 땅에 정착하는 장면입니다. 본문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1-4절은 요셉의 형들의 바로 왕 알현(謁見)과 고센 땅 정착 청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 7-12절은 야곱의 바로 왕 알현과 바로에 대한 축복 및 야곱 가족이 그들의 청원대로 고센 땅에 정착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본문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야곱 가족은 대 기근이 끝날 때까지만 임시적으로 애굽 땅에 정착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4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야곱 자손은 대대로 430년 동안(B.C 1876-1446년) 애굽에 거주했습니다(출 1장).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15:13-16)을 성취하기 위하여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 정주하도록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하에 택한 백성을 중심으로 주도 면밀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지난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과 뜻을 발견하고 그에 절대적으로 순종함은 물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약속을 의심 없이 반드시 성취될 진리로 수납하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 진리입니다.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새롭게 그 말씀 앞에 감동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소서. ② 각 교구를 섬기는 '모든 교역자와 일꾼들' 에게 은혜와 능력과 건강을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영적 갈망함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적인 위치와 소유욕보다는 믿음에 대해서 더 큰 갈망과 기대감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며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야곱과 그의 아들 요셉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높은 지위를 써서 자기의 자녀들을 얼마든지 출세시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을 그의 아버지 앞에 데리고 옴으로써 아들들이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고 있는지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족장들에게 하신 언약(3,4절)이 이루어질 때를 미리 내다보았습니다. 야곱은 요셉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그리고 의도적으로 둘째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복을 빌어 줍니다. 훗날 야곱의 축복대로 에브라임이 실제로 강한 지파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증거하고 축복하는 과정에서 믿음의 절정을 보여 줍니다(15,16절).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과거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현재, 야곱자신 그리고 미래 요셉의 아들들과 그들의 후손들을 다 포함한다는 사실입니다. 언약을 바라보고 믿음의 표현을 하고 있는 언약의 후손 야곱과 그 약속을 이루려는 요셉의 믿음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말씀에 온전한 지배를 받고 그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은 온전해 질 것입니다. 더 큰 믿음을 갈망하며 기대하며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이 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은총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니(히11:6).

기도 제목 / 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게 하소서. ② 교회 각 분
아에 봉사할 '신실한 일꾼들'을 많이 허락해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마지막 족장인 야곱은 마지막 유언으로 그의 위대하고 파란만장한 생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끝까지 여호와와의 언약을 붙잡고 구속의 은총을 입으려고 하는 모습과 그 풍성한 영적 유산을 그의 후손들에게 남기려 하는 모습 속에서 구속의 관심과 열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야곱의 예언은 르우벤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예언 가운데서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할 사람들은 유다와 요셉지파의 유언입니다. 특별히 유다의 예언(8-12절)은 대단히 많은 분량을 받게 됩니다. 특히, 그 내용은 메시아에게 해당되는 요소를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는 정복자와 왕의 면모를 지니고 있는데(8-10절), 그 면모는 우주적인 통치와 지극한 번영에까지 이릅니다(10-12절). 이것은 구약선지자들이 가리키던 '황금시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사 9:7). 그리고 이 예언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됩니다. 요셉은 무성함(22절)과 학대(23절)와 전능자의 손을 힘입어(24절) 확신(25절)을 갖고서 구별됨의 은총을 입게 될 것을 알게 하십니다(26절). 야곱의 이 마지막 요청(29,30절)에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굳은 믿음이 다시 한 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수많은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구원받음의 은총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께서 이루실 승리의 날에 관결 골짜기에서 주의 성호를 찬양할 수 있는 자리에 이미 초청하셨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들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계 1:3).

기도 제목 / ① 신실하신 주의 말씀에 늘 순종할 수 있게 하옵소서. ② 교회의 모든 일들을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좇아 행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이제 모든 족장들의 시대를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족장들의 세계를 통하여서 이제 열방으로 향하신 거대한 발자국을 남기셨습니다. 족장들의 세계가 요셉의 죽음으로 마무리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권고하시겠다고(24, 25절) 약속하심으로 약속의 씨를 통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야 마시겠다는 신적 의지를 보이십니다.

야곱은 죽어서 특별한 대접을 받습니다. 야곱과 요셉의 시체에 향 재료를 넣은 것(2,3,26절)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끌어 언약의 땅으로 인도해 가실 때를 내다보고 그때까지 애굽에 남아 있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24,25절). '애굽에 남아 있는 관' (26절)은 그 일을 기억하고 기대하게 하는 표였고, 훗날 그의 자손들은 그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출 13:19; 수 24:32; 히 11:22). 요셉의 형들은 여전히 복수를 당할는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싸여 있었습니다.(15~21절)그러나 요셉은 용서해 줌으로써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인도하셨음을 인정함으로써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진리,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삶을 살았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구약의 12지파는 단순히 이스라엘 지파의 후손들만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도구였습니다.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그분의 사랑을 창세기를 마무리하면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국 우리를 향하신 것이었습니다.

기도 제목 / 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에 거룩한 사역의 도구로써 주소서, ② 이웃을 향한 구제와 봉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 만을 전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는 위엄에 찬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이 복음은 결국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에 관한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자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발견하게 됩니다.

예언대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전령이 왔습니다(3절). 그 전령, 요한은 옛 시대와 새 시대 사이에서 있으면서 중재자로서 서 있었듯이 예수께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계시면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사람을, 사람에게 대해서는 하나님을 각각 대표해 주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세례를 주는 분이 되실 것입니다. 동시에 그 분은 사람으로서, 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다는 것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분은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사람을 낚는 어부’인 제자들을 부르고, 그의 복음은 귀신 들린 사람과 많은 병든 사람들은 온전하게 하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그분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굴복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복음의 능력을 덧입히셨습니다. 오직 복음으로 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허락하신 복음의 능력을 열방 가운데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이 복음입니다.

기도 제목 / ①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늘 자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② 각 나라 가운데 뿌렸던 복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주님이 오신 이유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신 그분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 통치가 임하실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면 주의 통치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함께 가르침이 베풀어집니다. 그러나 이 가르침에 대하여 유대인들은 "어찌하여..."라고 하면서 처음으로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전통과 이해를 벗어나는 예수님의 언행과 행위에 대해서 질문들을 제기하는 것을(7,16,18,24절)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그의 메시지는 죄 사함에 관한 것이었습니다(5,10,11절). 어떤 사람들은 세리인 레위와 잔치를 벌이고 어떤 사람들은 금식을 현상이 유대인들과의 논쟁을 불러 일으켰습니다(16,18절). 그러나 예수께서는 '생배조각'과 '새 포도주'를 들어 말씀하시면서 복음은 옛 사고방식과 관습을 완전히 바꾸어 버리는 것임을 보여 주셨습니다. 또한 안식일의 논쟁을 통하여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동시에 이 안식일의 주인임을 공개적으로 선포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 복음은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 그리고 물질관을 하나님의 나라의 신령한 것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인간의 유일한 희망이 되어야 하고 목표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후 5:17).

기도 제목 / ① 늘 복음의 진리 안에 거하게 하소서. ②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는 열심을 회복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주님의 갈릴리 사역이 본격화되며 점차 결실을 맺어 많은 무리가 주를 따르고, 주님께서는 12제자를 택하셨습니다. 또한 사단의 사주로 예수님을 무조건 배척하는 자들의 반감도 더욱 고조되 가고 있습니다.

종교의 위선에 젖어있던 유대종교의 지도자들은 율법의 근본정신을 설파하고 하나님나라의 새로운 윤리를 가르치는 예수그리스도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었습니다(2,4절). 본문에 등장하는 손 마른 사람이 안식일에 예수님께 병 고침을 받으므로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참된 안식일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아무리 많은 안식일을 준수했을지라도 결코 진정한 안식일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 역시 주일 성수하려고 노력할 뿐만 아니라 주일날 예수그리스도를 진실히 만남으로써 주가 주시는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그리스도께서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중 어느 것이 옳으냐' 고 하셨습니다(4절).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그리스도자신임을 말씀하셨습니다(2:27-28절).

예수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십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런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까? 주일날 여러 가지 봉사하는 가운데 참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십시오.

기도 제목 / ① 예수그리스도안에서 날마다 참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소서. ② 2002년 단기선교를 통해 전교회가 하나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무장되도록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문에 등장하는 비유 중에 씨뿌리는 비유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전체에 등장하는 비유입니다. 본문은 씨뿌리는 자의 비유(1-9절), 그 해설(10-20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4가지 땅이 나옵니다. 길가, 흙이 얇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이 나옵니다. '길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하여 딱딱하게 굳어진 땅입니다. 강박한 마음에는 말씀의 뿌리가 내리지 못합니다. '흙이 얇은 돌밭'은 석회질과 암석과 돌들 위에 흙이 얇게 덮인 밭입니다. 겉은 부드러워 보이지만 속마음은 아집과 교만으로 가득 차서 완고하기 때문에 믿음이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가시떨기'는 주로 농경지 주위에 자라는데 때로는 곡식과 함께 자라기도 합니다. 곡식보다 성장력이 왕성하고 활발해서 곡식이 흡수해야 할 양분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햇볕을 막아서 곡식의 성장을 방해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세상의 염려와 물질의 유혹과 여러 가지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이 자라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좋은 땅'은 쟁기질이 잘 되어 있어서 통풍이 잘 되고 습기는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땅입니다. 흙이 충분하여 지력이 보존되어 있고 가시떨기나 잡초들처럼 씨앗의 성장을 방해하는 장애 요소들이 제거된 땅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인내로 지켜서 열매를 맺게 되는 마음입니다.

자신은 4가지 밭에서 어떤 밭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뿌리내렸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내 마음이 어떻게 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품읍시다.

기도 제목 / ① 저의 마음 밭을 갈아엎어서 좋은 밭이 되게 하여 주소서. ② 강기업 단기 선교사(스리랑카)가 맡겨진 영혼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행하신 3가지 치유의 이적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땅의 인간들의 직면하는 영, 육간의 모든 죄고를 완전하게 치유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아이로의 간절한 요청에 의해 그의 딸을 고치고 집으로 가는 도중에 사람이 와서 그의 딸이 죽었다고 하였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기만 하라’는 말씀은 현재형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네가 처음 내게 가졌던 믿음을 지금도 그대로 굳게 간직하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아이의 부모와 함께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서 죽은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하셨습니다. 달리다굼이라는 뜻은 ‘소녀야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일어나라’입니다. 말씀대로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걷습니다.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랍니다. 곧 크게 놀라고 놀란다는 뜻의 원 뜻은 ‘너무나 놀라서 황홀경에 빠져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비웃었던 사람들이 너무나 놀라서 황홀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서는 믿는 사람에게 그 영광을 보여주시고 믿는 사람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어떤 환경의 두려움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습니까?

주와 함께라면 어떤 환경도 두렵지 않습니다.

기도 제목 / ① 나도 믿음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② 최은아 단기평신
도선교사(스리랑카) 늘 성령충만하여 어린이와 심방사역을 잘 감당하
도록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문에서부터 예수님의 제2차 사역이 마무리되고, 갈릴리 사역의 후반기, 즉 3차 갈릴리 사역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전반기 사역은 주로 갈릴리 본토에서 이루어졌으나 여기서부터는 갈릴리 동북방 즉 두로와 시돈 및 가이사랴 빌립보와 데가볼리 지역 등지로 옮겨 다니면서 사역하시고 특히 제자들의 훈련에 주력하십니다.

이러한 후기 사역의 막을 여는 본문은 예수께서는 고향 나사렛을 방문하신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고향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 합니다. 이러한 사건은 인간적인 지식과 경험만으로는 결코 메시아에 대한 참된 신앙을 지닐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나사렛 주민들은 누구보다 예수님에 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였으나 오히려 그들의 인간적인 선입견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성장과정을 잘 알고 있는 동네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동생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를 배척하였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조차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눈으로 알 수 없고, 사람의 생각으로 믿을 수 없습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오직 성령으로만이 예수님을 바로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낳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주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기도 제목 / ① 예수님을 날마다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② 협력선교사(이집트의 허요셉)가 지속적으로 일하며 구체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이스라엘 유대지도자들이 무조건적이고 악의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이신 주님을 배척하기 위하여 결례에 대한 논쟁을 제기합니다(1-5절). 본문에는 이에 대하여 주께서 유대지도자들을 책망하신 내용(6-13절)과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교훈하신 내용(14-23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나 율법의 근본정신을 무시하고 그저 율법의 문구에 얽매며 위선적인 종교생활을 일삼고 있던 바리새인들에 대한 비판과 책망이 나옵니다(6-13절). 유대의 종교지도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기보다 장로들의 유전(전통)을 엄수하는 인간적인 일에 더 열심이었습니다(3-4절). 내적인 성결을 이루기 위해 죄악과 불의를 멀리하기보다 부정을 피한다는 명목으로 외식적인 자세로 일관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인간이 부정케 되는 원인이 정결 규례를 준수치 못한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행위에 있음을 밝혀 주셨습니다(14-23절). 겉으로 보기에는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경건하고 거룩한 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위선을 밝혀내셨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말씀보다 유전(전통)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경험이나 자기의 생각을 더 우위에 두는 것이 위선적인 행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보다 경험이나 생각을 더 우위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때문에 마치 자기가 경건한 사람인 줄로 착각하고 다른 사람도 속이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주님만이 선하십니다.

기도 제목 / ① 하나님말씀만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②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특히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중보기도하는 일이 곳곳에 일어나도록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오천 명, 사천 명을 먹여 주신 기적을 보고서도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아 그 기적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자신에 대한 진리를 확실히 깨닫도록 하기 위해 반복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자들의 형편을 살펴 주셨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알고 채워 주셨습니다(1-3절). 그렇지만 예수님은 작더라도 내게 있는 것을 찾아보도록 요구하십니다. 내게 있는 것을 주님께서 사용하시도록 내어놓아야 합니다(5-7절). 주님은 성도들이 진리를 잘 이해하지 못할 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책망하십니다. 최근에 주님께 책망 받은 적이 있습니까(17-21절)?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의 신앙고백을 듣기 원하셨습니다(29절). 바른 신앙고백을 들으신 후에야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알려고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신앙고백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31,32절).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면서도 예수님의 가르침과 능력을 믿지 못했습니다. 헤롯당은 세상적인 권력을 놓기가 싫어서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불신앙은 삶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내 삶에 영향을 끼치는 누룩은 무엇입니까(15절)? 기적만을 바라고 따라 다닌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지 못했습니다(27,28절).

제자의 삶은 자기를 부인하고 고난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까지도 포기해야 합니다. 나는 내 자신의 야심을 부인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함과 아울러 주님의 뜻이라면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모든 십자가 중 가장 큰 십자가는 자기 자신입니다.

기도 제목 / ① 내 생각과 야심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좇겠습니다. ② '충현선교훈련원' (CMTC)을 통한 모든 훈련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변화산 위의 엄숙하고 영광스러운 광경과 산 아래의 제자들이 겪고 있는 실패와 다툼은 참으로 대조적 입니다. 예수님께서 올법과 선지자들의 의혜 예언된 메시아 이심이 영광 중에 드러나고 있는 엄숙한 순간에 산 아래의 제자들은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지를 놓고 헛된 다툼만 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변화산 사건을 바라볼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은, 그 사건이 십자가 죽음의 예고와 더불어 있었다는 점입니다(막 8:31). 이 사실은 십자가의 고난 후에 하늘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런고로 오늘 우리 성도들은 하늘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나머지 이 땅의 십자가를 등한시해서는 안됩니다(1-8절). 이 시간 귀신들린 아이의 아버지처럼 답답한 심령을 가진 자가 있습니까? 모든 사실을 주님께 솔직히 고하시고, 주님의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십시오! 주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끝까지 메달리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14-29절). 예수님의 겸손과 섬김의 가르침은 높은 자리에 오를 요량으로 언쟁을 벌였던 제자들을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보다 섬김 받고 대접받고자 다툼은 우리들을 부끄럽게 만듭니다(33-37절).

우리도 현세의 축복과 세상의 부귀 영화만을 소망하고 예수를 좇다 보면, 당시 제자들처럼 신앙의 혼선을 빚고 마음이 심히 낙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고로 오늘 우리 성도들은 “십자가 후의 부활” 이라는 이 위대한 기독교의 진리를 믿고, 십자가 앞에서도 담대한 신앙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롬 8:18).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를 지는 자에게서 시작됩니다.

기도 제목 / ① 고난 가운데도 부활신앙을 가진 자가 되겠습니다. ② 농어촌의 교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날로 부흥하여 민족 복음화의 산실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 짓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도중에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죽이기로 계획하고 그 구실과 기회만 찾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음모에 찬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는 내용(1-12절)에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사역이 평탄치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완악한 인간은 “어떻게 이혼할 수 있는가?”를 질문하였지만,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혼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기억하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결혼의 원리에 충실할 때 이혼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1-12절). 내세를 위해 모든 현세적인 것들을 버릴수 있는 신앙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십니다. 부자가 두 주인을 섬기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일도, 가난한 자가 주님께 나오는 일도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을 얻기가 불가능합니다(24-27절). 예수님께서서는 고난과 치욕의 잔을 받을 것을 아셨지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죄인들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주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심으로 섬김의 본을 보여 주셨습니다. 나는 주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32-45절)?

예수를 발견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전에 유익하던 것을 오히려 다 해로 여기고, 또한 배설물로 여긴다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을 오늘 나의 고백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정녕 그리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의 삶을 누리는 복된 자들이 될 것입니다.

고난이 크면 클수록 그에 따르는 영광도 또한 크다.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정을 이루겠습니다. ② 전 주일학교가 오직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통하여 놀라운 부흥을 체험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은 고난 주간의 첫째 날에서 셋째 날 사이의 일들에 대한 언급입니다. 먼저 고난 주간 첫째 날에 예수님께서서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이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을 청결케 하심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세를 지니신 분임을 나타내신 행동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정녕 그분이야말로 구약 예언을 좇아(슥 9:9) 이 땅에 오신 평강의 왕이요, 순결의 왕이며, 겸손의 왕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귀 새끼를 타신 그 겸손을 본받아 오늘 우리도 참으로 겸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1-10절). 외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종교 형식은 화려하나 신앙의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영적인 모습을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무화과 열매는 믿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고 있습니까? 23절의 말씀은 마지막 날에 있을 사건(슥 14:4,5,10)을 언급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반드시 구원과 심판의 권세를 갖고 마지막 날에 임하실 주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22-24절).

사람들은 예수님께서서 메시아 예언(슥 9:9)을 이루셨다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삼하 7:14)대로 다윗 왕국이 회복될 것을 기대하며 즐거워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예언을 피상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며칠 뒤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외칩니다. 나도 선입관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곡하는 죄를 범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자신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기도 제목 / ① 한국 교회가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② 5부 예배를 통해 주의 청년들이 복음에 매이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에서는 예수님을 정죄하기 위해 유대의 거의 모든 지도자들이 동원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의 음모에 찬 질문을 간파하시고 권위와 지혜로 답변하시으로써 오히려 그들의 흉계를 폭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그 땅의 주인이라도 되는 듯이 행세하면서 마땅히 주님께 드려야 할 것을 거절했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주시려고 오신 예수님마저 십자가에 못박게 했습니다. 나는 주님을 내 신앙과 생활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습니까(1-12절)? 유대 법에 형이 후사가 없이 죽으면 아우가 형수와 결혼하여 후사를 잇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각 지파의 땅을 그대로 보전하여 땅이 한 사람에게 편중되는 것을 막는 장치였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이러한 의미를 알지 못한 채 부활 문제에 적용한 것입니다. 서기관들의 외식하는 태도는 타성에 젖은 신앙 생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생활이 하나님과 성도 자신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긴밀한 교제임을 기억하고 매순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노력해야 합니다(38-40절).

하나님께서서는 나의 실제 생활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길거리에서의 모습이나 잔치 집에서의 태도, 심지어 연보하는 것까지 다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나의 삶에 대해 무슨 말씀을 하실 것인지 생각하며 오늘 하루의 삶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편견을 가지지 않는 것이 믿음이다.

기도 제목 / ①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임을 생활 속에서 고백하게 하옵소서. ② 이 땅에 소외받는 자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예수님의 재림을 대조시키면서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깨어 있으라는 말씀은 너무나 선명합니다.

하나님은, 성전이 바른 교제를 나누는 장소로서 바른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비록 성전이라도 파괴하십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외형적인 아름다움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러나 외형적으로 크고 화려한 것이 곧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은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1-2절). 성도들의 고난도 종말시대의 한 증거입니다. 성도들은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고난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할 때에 나 자신이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까 생각하지 말고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주님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자에게 구원이 가깝습니다(9-13절). 하나님은 환난 때의 일을 미리 말씀해 주셔서 준비하게 하십니다. 나는 그날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23절)? 재림하실 날이 가깝습니다. 그 날은 깨어 있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지만, 세상이 주는 성공과 쾌락에 취해 자고 있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입니다. 나는 주님을 구원자와 심판자 중 어떤 분으로 맞기를 원하고 있습니까(28-37절)?

“깨어 있으라”는 말씀은 그 날과 그 시를 아는 일에 열심을 내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시더라도 부끄럼 없이 주님을 맞도록 맡겨 주신 청지기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됩시다.

환난의 때에 세상의 것에 연연했던 롯의 처의 결국을 기억하라.

기도 제목 / ① 환난을 피하지 않고 감당하는 믿음을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구역예배공과

구역예배순서

찬 송	다같이
구역공과	인도자
기 도	인도자
주기도문	다같이

- ▶ 구역예배 소요시간은 최소한 40분 정도가 필요합니다.
다. 인도자의 지도에 따라서 최선을 다할 때 은혜가
넘치는 구역예배가 될 것입니다.

제 1 과

너도 기뻐할 것이요

• 찬송 / 469장(내 영혼이 그윽히 깊은 데서) • 본문 / 눅 1:5~17

못갖추고
리듬과
정확히

마디로 시작할 때
음정을 산뜻한
느낌으로

한마디를 두박으로 하여
8분의 6박자가 갖는 '등실~등실~'
하는 느낌을 잘 나타내도록 합니다.

가사를 생각하며
우아하고 생동감이
넘쳐도록 노래합니다.



1.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2.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울려나 보배로다
3. 내 영혼에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4. 이 땅 위의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끝까지 힘있게 지속

음과 가사를 하나하나
잘 살려서 정성껏 노래합니다.



하늘극조가 언제나 울려나와 내 영혼을 고이싸네
나의 보화를 캐내어가져갈자 그 누구라 안심일세
내 기주아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우리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평화를 누리겠네

찬송의 절정을 향하여

주연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주님의 사랑을 깊이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드잡게 찬송합니다.

기도와 같은 간절함을 갖고
찬송을 마무리합니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들어가면서(서론)

하나님의 예언적인 계획은 언제나 그분의 시간표대로 정확하게 진행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어떤 때는 신속히 성취되는 것 같기도 하고, 다른 때에는 너무나 늦어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어느 쪽이든 우리는 그것이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느리게 오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은 가장 적당한 시간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스라엘 백성은 4백년 이상을 노예로 고통 당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그들은 부르짖었고, 많은 괴로움의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4백년이 지난 후에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그들의 구원자로 보내셨습니다. 오늘의 성경본문은 세례 요한의 탄생에 관한 선포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이 놀라운 선언에 앞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예언이 더 이상 들려지지 않는 4백년이라는 긴 침묵의 시간을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마지막으로 들려오는 예언적 메시지를 말라기 선지자에게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와 열정으로 기다렸었습니다. 마침내, 4백년이라는 침묵의 시간이 물러가고 좋은 소식이 임했습니다! 지금 우리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관하여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계 22:20). 이것은 2천년 전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배우는 목적

- ① 인간에게 고통과 기쁨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배우다.
- ② 세례 요한의 탄생 목적에 대하여 배우다.

머물면서(본론)

1. 먼저 오늘의 본문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보십시오(우선 누가복음 1장 5절~17절을 읽고, 정해진 구절, 정해진 핵심단어를 이해함으로 본문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① 5절 ~ 7절 - 사가랴와 엘리사벳

③ 11절~12절 - 놀라며 무서워하니

④ 13절~15절 - 요한

⑤ 16절~17절 - 돌아오게

2. 다음주일 설교(‘너도 기뻐할 것이요’)의 단원에 따른 질문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려는 교훈을 나누어 보십시오.

① ‘경건한 자에게 있는 고통’에 대한 단원을 읽으신 후,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겪고 있는 고통이 무엇이었는지 말해보십시오(정신적·육체적·영적 등).

② ‘무거운 짐을 벗기심’에 대한 단원을 읽으신 후, 그들의 무거운 짐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일상의 날에 벗겨진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해보십시오(기도 응답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이루어진 것에 대한 반응).

③ ‘일상적인 날에 임한 은총’에 대한 단원을 읽으신 후, 예상하지 않는 평범한 날에 이루어진 은총의 경우를 성경에서 찾아보고, 여러분도 그러한 경험이 있다면 말해보십시오.

④ ‘풍성한 한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단원을 읽으신 후,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더해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었는지 말해보십시오(세례 요한과 관계된 것).

-
- ⑤ '기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단원을 읽으신 후,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 말해보십시오(어떤 심정으로 나아가야 할지).

나가면서(결론)

1. 우리에게는 언제나 여러가지 고통들이 그림자처럼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 순간마다 고통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날마다 새롭게 다가옵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그들은 '요한'이라는 아들을 받게 되었고, 그 아들은 많은 자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총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총에 대하여 어떤 반응을 보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도 '세레 요한'처럼 세상을 포기하고 천국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2. 이제 다음의 기도제목으로 다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고통을 은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 ② 주님의 뜻에 대하여 언제나 기쁨으로 반응하게 하소서.
- ③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게 하소서.

제목 :

본문 :

和声练习

第一乐章 呈示部 (A全调) 节奏四拍子 速度 1/4 = 60

主题 和声练习 和声 主题 和声 主题 和声 主题 和声
(主题 和声 主题 和声 主题 和声 主题 和声)

和声练习 主题 和声 主题 和声 主题 和声 主题 和声
和声练习 主题 和声 主题 和声 主题 和声 主题 和声



和声练习 主题 和声 主题 和声 主题 和声 主题 和声

和声练习 主题 和声 主题 和声 主题 和声 主题 和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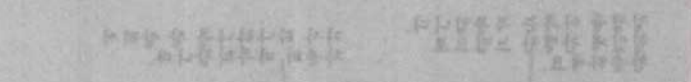
和声练习 主题 和声 主题 和声 主题 和声 主题 和声



和声练习 主题 和声 主题 和声 主题 和声 主题 和声

和声练习 主题 和声 主题 和声 主题 和声 主题 和声

和声练习 主题 和声 主题 和声 主题 和声 主题 和声



和声练习 主题 和声 主题 和声 主题 和声 主题 和声

和声练习 主题 和声 主题 和声 主题 和声 主题 和声

和声练习 主题 和声 主题 和声 主题 和声 主题 和声

제 2 과

정하신 때에

• 찬송 / 217장(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 본문 / 갈 4:1~7

4분음표 3개를 한 박으로 하여 한마디가 모두 세박자로 이루어져 있는 박자입니다.
(‘하나둘셋~둘둘셋~셋둘셋~’하는 식으로)

구간마다 이와 같은 식으로 점차 커지면서 시작하여 다시 잔잔하게 되는 식으로 섬여림을 살려서 노래합니다.

느리게 ♩ = 64

1. 주 님 의 뜻 을 이 루 소 서 고 요 한 중 에
2. 주 님 의 뜻 을 이 루 소 서 주 님 앞 에
3. 주 님 의 뜻 을 이 루 소 서 병 들 어 몸 이
4. 주 님 의 뜻 을 이 루 소 서 온 전 히 나 를

절정 을 향하여
끝까지 지속

기 다 리 니 진 흥 과 같 은 날 빛 으 사
엎 드 리 니 나 의 맘 속 을 살 피 시 사
피 곤 할 때 권 능 의 손 을 내 게 퍼 사
주 장 하 사 주 님 과 함 께 동 거 함 을

절정 을 이루는 부분입니다.
합의제 간절한 느낌으로 찬송하세요.

가사 하나하나를 잘 살려서
차분히 마무리합니다.

주 님 의 형 상 만 드 소 서
눈 보 다 희 게 하 올 소 서
새 롭 게 하 올 소 서
만 민 이 알 게 하 올 소 서

아 엔

들어가면서(서론)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우리는 양치는 목자, '베들레헴'의 여인숙, 지혜로운 사람들, 천사의 방문,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에 대해 예언했던 설교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오늘의 성경본문은 완전한 시간에 오시는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하여 '갈라디아' 교회에 전하는 바울의 말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예수께서는 역사적으로 정확한 순간에 세상 안으로 들어오셨는데, 진실로 그는 조금도 틀림이 없는 바로 그 순간, 정하신 때에 즉각적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주권은 틀림없이 그분이 정하신 시간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분께서 시기를 맞추시는 일은 언제나 완전하고 절대적이며 흠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오시는 그 때는 언제나 정확하다는 의미를 생각해봅시다.

성경 말씀을 배우는 목적

- ① 하나님의 정하신 때와 인간이 기대하는 때가 다르다는 것을 배운다.
- ②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정확한 때에 오셨음을 배운다.

머물면서(본론)

1. 먼저 오늘의 본문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보십시오(우선 갈라디아서 4장1절~7절을 읽고, 정해진 구절, 정해진 핵심단어에 따라 이해함으로써 본문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① 1절~2절 -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② 3절 - 종노릇

③ 4절 - 때가 차매

④ 5절 - 속량

⑤ 6절 -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⑥ 7절 - 아들이니

2. 다음주일 설교(‘정하신 때에’)의 단원에 따른 질문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려는 교훈을 나누어 보십시오.

① ‘우리의 때와 다른 하나님의 때’에 대한 단원을 읽고, 인간이 바라는 때와 하나님께서 응답하기로 작정하신 때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성경에서 예를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주제와 관련된 경험이 있다면 말해보십시오 (두 종류의 때에 대해 말해볼 것).

② ‘때가 차매’에 대한 단원을 읽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때까지 역사적으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말해보십시오(성경역사를 개략적으로 말해볼 것).

③ ‘모든 시간과 상황의 주인’에 대한 단원을 읽고, 믿는 자들이 결코 포기하거나 낙망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말해보십시오(하나님의 주권과 신실성을 염두에 둘 것).

④ ‘언약에 따라 정한 때에 오신 예수’에 대한 단원을 읽고, ‘때가 차매’라는 것의 의미를 말해보십시오(예수께서 태어나신 때의 시대적인 배경).

-
- ⑤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아시는 예수'에 대한 단원을 읽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아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해보십시오(요 2:4, 17:1 참고).

- ⑥ '주의 뜻을 기다림'에 대한 단원을 읽고, 여러분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을 기다려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말해보십시오.

나가면서(결론)

1. 우리의 기대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때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때가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사 55:8).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왜 주님께서 정하신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 하는지 실제적인 이유들을 말해보십시오.

2. 이제 다음의 기도제목으로 다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예수님의 재림이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이루어짐을 믿게 하소서.
- ② 하나님의 정하신 때와 나의 때가 다름을 알게 하소서.
- ③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신뢰함으로 인내하게 하소서.

제목 :

본문 :

恒 友 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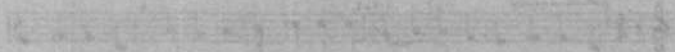
修 心 悟

第一輯：修心悟 (現代社會修心悟) (修心悟)

第一輯：修心悟 (現代社會修心悟) (修心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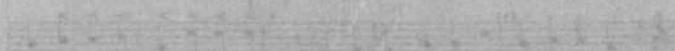
第一輯：修心悟

第一輯：修心悟 (現代社會修心悟) (修心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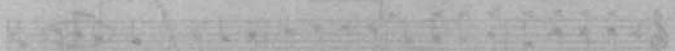
第一輯：修心悟 (現代社會修心悟) (修心悟)

第一輯：修心悟 (現代社會修心悟) (修心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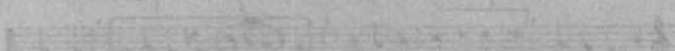
第一輯：修心悟 (現代社會修心悟) (修心悟)

第一輯：修心悟 (現代社會修心悟) (修心悟)



第一輯：修心悟 (現代社會修心悟) (修心悟)

第一輯：修心悟 (現代社會修心悟) (修心悟)



第一輯：修心悟 (現代社會修心悟) (修心悟)

제 3 과

천사의 출현

• 찬송 / 126장(천사 찬송하기를) • 본문 / 마 1:18~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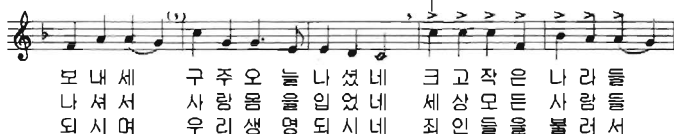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밝고 명량한 느낌으로
기쁘게 찬송합니다.

조금 빠르게 ♩ = 108

전체적으로 음 하나하나를 또렷하고 힘있게
노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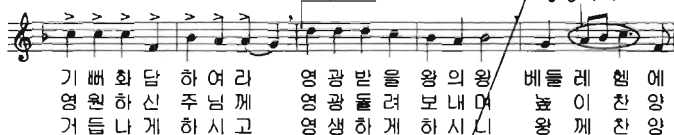


마치 바닥에 공을 통기듯
탄력적인 목소리로



지금까지보다 더욱 힘차게 찬송합니다.

음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분명하게



한번 더 반복되는 부분입니다.
더욱 강조하여 찬송합니다.

조금씩 느려지면서
장엄한 느낌으로 찬송을
마무리 합니다.



들어가면서(서론)

신약성경은 메시아이신 예수의 족보로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곧바로 예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언급합니다(1절). ‘다윗의 자손’은 그 시대에 있어서 매우 대중적인 메시아적 칭호였으며,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스라엘의 조상을 나타내는 매우 친근한 종교적 표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았고,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창 12:3). 참으로, 하나님의 언약인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은 아브라함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성취되어졌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저주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만일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받아들인다면 그들은 축복을 받게 되겠지만, 아브라함을 저주한다면 그들 역시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축복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으며, 저주를 받지 않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아브라함의 축복에 실제로 관계되어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마태복음 1장은 하나님의 신적인 섭리를 증명하는 매우 강력한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배우는 목적

- 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천사들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를 배우다.
- ②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베푸시는 은혜에 대해 배우다.

머물면서(본론)

1. 먼저 오늘의 본문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보십시오(우선 마태복음 1장 18절~25절을 읽고, 정해진 구절, 정해진 핵심단어에 따라 이해함으로써 본문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① 18절 - 성령으로 잉태

② 19절 - 가만히 꿇고자 하여

③ 20절~21절 - 주의 사자가

④ 22절~23절 - 선지자로 하신 말씀

⑤ 24절 - 분부대로 행하여

⑥ 25절 - 예수

2. 다음주일 설교(‘천사의 출현’)의 단원에 따른 질문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려는 교훈을 나누어 보십시오.

① ‘침묵과 언약’에 대한 단원을 읽고, 하나님께서 말라기 이후로 4백년 동안 침묵하신 이유를 말해보십시오(언약과 관계해서).

② ‘천사들의 출현’에 대한 단원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의 ‘임태’와 관련된 천사들의 방문에 대해 모두 말해보십시오(천사가 찾아간 사람들과 방문한 목적).

③ ‘천사들의 지시’에 대한 단원을 읽고, 천사들의 지시는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예수께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④ ‘놀라운 섭리’에 대한 단원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관련된 천사들의 방문에 대해 모두 말해보십시오(탄생에서 부활까지 전체적으로).

-
- ⑤ '믿음의 결단'에 대한 단원을 읽고, 천사의 방문은 요셉에게 어떠한 믿음의 결단을 가져오게 했으며, 마리아에게는 어떠한 은총이었는지 말해보십시오.

나가면서(결론)

1. 구약과 신약성경의 많은 곳에서 주의 천사가 출현하는 것을 대할 수 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뜻을 알리거나 행하기 위해 보내지는 주의 사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관련된 것 외에도 성경에 나타나는 천사의 출현에 대해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하는 일들을 말할 수 있는 대로 말해보십시오(창 19:15, 민 20:16, 삼하 24:16, 왕상 19:5, 시 103:20, 마 4:11, 마 13:49, 눅 16:22, 행 12:8, 살후 1:7, 히 1:14, 유 1:9, 계 7:11, 계 8:2).

2. 이제 다음의 기도제목으로 다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예수는 천사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소서.
- ② 천사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게 하소서.
- ③ 천사들을 통해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케 하소서.

제목 :

본문 :

제 4 과

너의 하나님

• 찬송 / 40장(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 본문 / 시 78:38~42

첫째 단과 둘째 단은 마치 독백과 같은
느낌으로 찬송의 가사에 깊은 신앙의 고백을
담아 노래합니다.

이와 같이 8분음표로 연속해서 나오는 부분을
노래할 때 딱딱하지 않고 부드러우면서도
감정이 풍부한 느낌으로 노래합니다.

모듬으로 ♩ = 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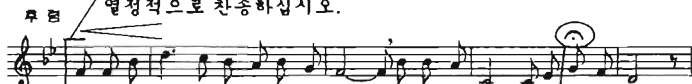
1.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 볼 때
2.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 소리들과
3. 주 하나님 독생 자아낌 없이 우리를 위 해보내 주셨네
4.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 하리

가사에 담긴 의미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해야 할 부분입니다.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찻네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숨씨 노래 하도다
심자가 에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나 경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 하리라

세째 단과 네째 단은 마치 큰 바다 물결이 출렁이듯 힘차고
열정적으로 찬송하십시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가장 힘있게 마무리 되어야 할
절정부분입니다.

꼭 접해진 길이 보다는
찬송하시는 주의 감정에
맞게 적절한 길이로 눌러서
노래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들어가면서(서론)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4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필요로 했던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먹을 것과 머물 곳, 그리고 피난처까지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면에 있어서 그들을 사랑하셨고 돌보셨습니다. 그러나 이 선택함을 받은 백성들은 최고의 존경심으로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인 먼지와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유한 분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자신의 절대적인 주권을 표현하시고 행하시며 밝히 드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거역하고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앞에서 모든 것들 위에 계신 그의 통치와 권위를 드러내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모든 우주를 통제하심을 나타내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권능, 그리고 심지어 자신들을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구속하신 그 날을 잊어버렸습니다. 결국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제한하였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을 배우는 목적

- 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배운다.
- ②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 배운다.

머물면서(본론)

1. 먼저 오늘의 본문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보십시오(우선 시편 78편 38절~42절을 읽고, 정해진 구절, 정해진 핵심단어에 따라 이해함으로 본문을 충분하게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① 38절 - 자비하심

② 39절 - 바람

③ 40절 - 몇 번이고

④ 41절 - 시험

⑤ 42절 - 기억, 생각

2. 다음주일 설교('너의 하나님')의 단원에 따른 질문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려는 교훈을 나누어 보십시오.

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에 대한 단원을 읽고,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하여 제한하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해보십시오(일단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② '하나님은 거룩하시다'에 대한 단원을 읽고, '이사야'와 '사도 요한'이 바라본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어떤 수준이었는지 말해보십시오. 그리고 그 거룩하심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해보십시오(죄와 관계해서).

③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신다'에 대한 단원을 읽고, '하나님의 무소부재'(無所不在)하심에 대하여 말해보십시오(그 뜻과 그것을 각자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④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에 대한 단원을 읽고,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대하여 말해보십시오(그 뜻과 그것을 각자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⑤ '하나님은 모든 것에 능하시다'에 대한 단원을 읽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말해보십시오(그 뜻과 각자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⑥ '하나님에 대한 확신'에 대한 단원을 읽고, 여러분 각자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에 대하여 말해보십시오.

⑦ '진적인 믿음이 필요함'에 대한 단원을 읽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해보십시오.

⑧ '진정한 믿음이 필요함'에 대한 단원을 읽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해보십시오.

⑨ '진정한 믿음이 필요함'에 대한 단원을 읽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해보십시오.

⑩ '진정한 믿음이 필요함'에 대한 단원을 읽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해보십시오.

⑪ '진정한 믿음이 필요함'에 대한 단원을 읽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해보십시오.

⑫ '진정한 믿음이 필요함'에 대한 단원을 읽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해보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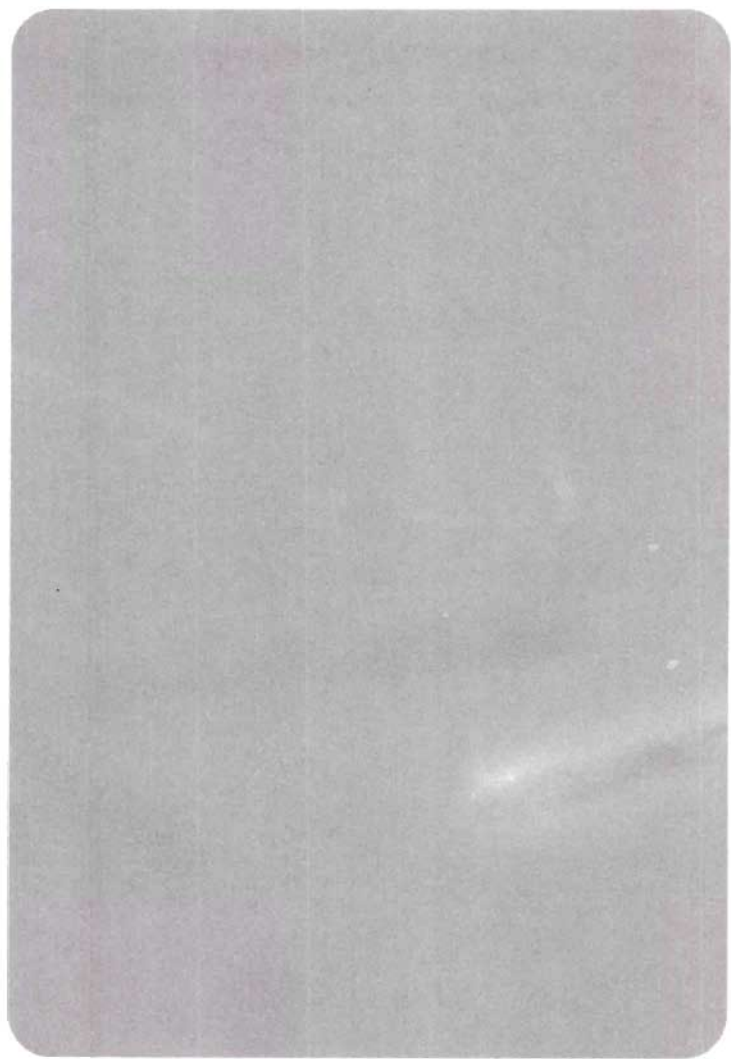
⑬ '진정한 믿음이 필요함'에 대한 단원을 읽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해보십시오.

나가면서(결론)

1. 이제 2002년도가 저물어 갑니다. 한 해 동안 수많은 예배와 성경을 배우는 모임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 배우고 경험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억해야 하실 것은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는 관계없이 그분은 기록하시며, 모든 곳에 계시며,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스스로 계신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께 찾아오시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놓으십시오.
2. 이제 다음의 기도제목으로 다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하나님을 나의 판단과 경험과 지식으로 제한하지 않게 하소서.
 - ②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맞이하여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게 하소서.

제목:

본문:



남성도구역예배공과

구역예배순서

찬 송	다같이
구역공과.....제4과.....	인도자
기 도	인도자
주기도문	다같이

- ▶ '남성도구역공과' 는 '구역예배공과' 중 '제4과' 를 해당공과로 삼아서 공부하기로 합니다.

『동행』의 두 코팅

박승현의 두 코팅

동행의 두 코팅

『동행』의 두 코팅

『동행』의 두 코팅
『동행』의 두 코팅

가정예배 안내

예배순서

찬 송	다 같이
성경봉독	사회자
메시지 낭독	
기 도	다 같이
주 기도	다 같이

•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함

• 예배 사회자

각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함

• 찬송과 성경 본문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 일자에 소개된
찬송을 부르고, 성경 본문을 봉독

중원외 만나 · 2002년 12월호 · 발행인 / 김성관 · 편집인 / 노광현
· 집필진 / 만나 · 정 · 훈(1-5일), 양현덕(6-10일), 김활관(11-15일),
위건량(16-20일), 김익원(21-25일), 김정수(26-31일)·목사
· 구역예배공과 · 김동하 목사
발행처 / 중원교회 출판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32-8200) [비매품]